

비트코인 높은 변동성 줄일 '간접투자 선택지' 주목

미래에셋, 블록체인 상장지수펀드
두나무, 디지털 자산지수 개발
가상화폐 투자상품 제도권 편입 논의



급격하게 달아올랐던 가상화폐(암호화폐) 열풍이 시들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나오는 분위기다. /유토이미지

급격하게 달아올랐던 가상화폐(암호화폐) 열풍이 시들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나오는 분위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블록체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데 이어 국내에서 첫 디지털 자산지수가 발표돼 관심이 향한다. 가상화폐 가격 하락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분산투자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 특성상 투자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음에도 간접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가격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자회사 글로벌엑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나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글로벌 엑스 블록체인(Global X Blockchain) ETF'(티커 BKC

H)가 그 주인공이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솔라티브 블록체인 인덱스(SOLACTIVE Blockchain Index)'를 추종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블록체인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미국에서 상품명에 '블록체인'이 들어간 사례는 최초다. 이 상품

은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증권사 해외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를 기대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두나무와 함께 첫 디지털 자산지수를 개발하면서다. '에프앤가이드 엑스 두나무(FnGuide X Dunamu) TOP5 지수(이하

TOP5 지수)'를 지난 16일 공표했다.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TOP5 지수는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자산 중 시가총액 상위 다섯 종목을 선정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도지코인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30%씩 편입했고 나머지 세 종목은 동일가중 방식으로 혼합해 산출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적 분산투자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지수들의 계속된 출시가 예고됐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코인 ETF와 펀드 등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논의는 가팔라질 예정이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그동안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높은 변동성에 노출됐다면 퀀트 베이스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TOP5 지수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시장

이 성숙하며 다양한 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투자 판단 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도 높은 지수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상품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0명은 최근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 범주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될 예정이다. 법안만 통과되면 가상화폐에 연동되는 ETF와 액티브 펀드 등 관련 상품들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장기적 상승 추세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간접투자 선택지도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KB금융, 한양대와 산학연계 교육협력 협약

IC-PBL 교육 매개로 협력체계 구축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아이디어 제안



지난 16일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왼쪽)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산학공동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를 통한 '넘버 원(No.1) 금융플랫폼' 도약을 위해 지난 16일 한양대와 산학협력 프로그램 IC-PBL(Industry Coupled Problem Based Learning) 중심의 산학연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부부장인 허인 KB국민은행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금융과 한양대는 IC-PBL 교육을 매개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은 한양대의 IC-PBL 교과목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면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돕고, 한양대는 KB금융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경험 제공을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KB금융은 한양대와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혜택·편의·즐거움을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양대 IC-PB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KB금융의 디지털마케팅과 20대 고객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 운영안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더불어 KB금융은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실무진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를 돕는 한편 우수 연구안에 대해서는 시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개방형 혁신, 융합이 가속화 되는 등 변화의 시대를 맞아 대학과 기업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비즈니스 이슈를 주제로 강의를 개설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과정이 넘버원 금융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적 수준의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IBK기업銀, BC와 무직타이거 카드 출시

MZ세대 취향 저격 캐릭터

IBK기업은행이 무직타이거, BC와 제휴해 'IBK 무직타이거 카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은행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한 카드 디자인에는 '무직타이거'의 대표 캐릭터인 '똥랑이'의 자유롭고 흥

겨운 이미지를 담았다. 또 '똥랑이'가 가위로 마스크 끈을 자르는 이미지를 한정판으로 출시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카드 양면에는 항공필름을 입혀카드를 통한 바이러스나 세균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IBK 무직타이거 카드(신용)'은 비대면 시대에 고객 선호가 높은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20% 할인과 ▲커피전문점 20% 할인 ▲영화관(CG 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만원 할인 ▲편의점 및 올리브영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IBK 무직타이거 카드(신용)'의 연회비는 BC(비씨) 1만원, Master(마스터) 1만2000원이다.

/나유리 기자 yul15@

신한금융, ESG 사례 담은 보고서 출간

정략적 데이터 공시

신한금융그룹이 올해의 주요 ESG 활동과 정략적 데이터(Data)를 공시하는 '2020 신한금융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본 보고서 발간에 앞서 지난 3월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ESG 하이라이트'를 발간했다. 금번 'ESG보고서'는 투자자와 평가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ESG 정량 Data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거래소(KRX)에서 제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권고지표를 신규 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경(E) 관점의 탄소중립금융 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과 친환경 금융 실적을 공개했고, ▲사회(S) 관점의 스타트업 육성과 금융 소외 계층에 대



한 지원 활동 등 신한금융이 집중하고 있는 ESG 사업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특히, ▲기업·지배구조(G) 부분에서는 이사회 내 ESG전략위원회의 주된 활동인 '사회적 가치측정 모델(SVMF)'과 'Zero Carbon Drive 추진' 등 구체적인 ESG 사업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보고서를 통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한 해답은 ESG"라며, "신한금융은 ESG의 가치 있는 길을 먼저 걸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안내하는 ESG 등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NH농협은행, 100년 퀴즈왕 이벤트

1회 이상 참여시 자동 응모

NH농협은행은 창립6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까지 NH멤버스 앱을 통해 '함께한 60년 함께하는 100년 퀴즈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멤버스 앱의 '농협 창립 기념퀴즈' 메뉴를 통해 1~4차 퀴즈 중 1회 이상 참여 시 자동 응모되며 참여횟수가 증가할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간다. 참여는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11명에게 ▲NH포인트 60만원(1명) ▲NH포인트 6만원(10명) ▲NH포인트 6000원(1000명)을 제공한다.



또 SNS 채널을 통한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NH멤버스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댓글로 정답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24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NH멤버스 앱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소환 기자 think@